



홍길동 님을 위한

# 40세 가장의 은퇴연금 + 소득보장 통합설계

2026년 2월 | 맞춤 컨설팅 자료

본 자료는 상담 보조 자료이며,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연령

만 40세 (1986년생)

가족

배우자 + 자녀 2명

직업

중견 제조업 과장

목표

은퇴 후 월 300만원

# 오늘의 선택

[은퇴 설계] : 진행 여부가 아니라, 어떤 방식이 더 편안한지를 고릅니다

한 줄 결론: 오늘은 '할지 말지'가 아니라, A안(효과 우선)과 B안(부담 우선) 중 선택하는 자리입니다.

- ✓ 오늘 확인할 3가지: ① 은퇴 후 현금흐름 부족분 ② 교육비 집중기 방어 ③ 소득 공백 대비
- ✓ 결론은 A/B 중 하나를 체크하는 것이며, '하시겠습니까?'라는 질문은 없습니다
- ✓ 모든 수치는 보수적 가정 기반이며, 실제 확인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
- ✓ 이 자리는 홍길동 님 가족의 20년 현금흐름을 한 번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

## A안 효과 우선

부족분을 빠르게 줄이는 설계

## B안 부담 우선

현금흐름 유지하며 단계 적용

컨설턴트 멘트: "홍길동 님, 아이들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은퇴 준비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으셨죠? 오늘은 '할지 말지'가 아니라, 두 가지 방식 중 더 편안한 쪽을 골라보시는 시간입니다."

# 현재 진단

[재무 스냅샷]: 홍길동 님 가정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

한 줄 결론: 소득은 안정적이거나, 은퇴·보장 준비는 국민연금 외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.

 월 수입

**420만원**

실수령 기준

 월 지출

**390만원**

여유자금 30~70만

 순자산

**약 3.3억**

아파트 5억 - 대출 2억 + 예적금 0.3억

 보장 현황

**사망 1억만**

CI·암·뇌·심 보장 공백

- 국민연금 예상 월 120만원 (65세~) — 목표 생활비 300만원 대비 180만원 부족
- 개인연금·IRP 전무 → 연간 최대 115.5만원 세액공제 미활용
- CI·암·뇌·심 보장 없음 → 소득 중단 시 가족 생활비 방어 수단 부재
- 교육비 향후 10년간 연 1,000~1,500만원 예상 → 저축 여력 점진 축소

컨설턴트 멘트: "홍길동 님, 소득과 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데, 은퇴 이후와 만약의 상황에 대한 준비는 아직 시작 전이지요?"

# 사실 정리

[기초 데이터]: 숫자로 보는 홍길동 님 가정의 재무 구조

한 줄 결론: 20년 후 은퇴까지, 교육비·대출·노후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핵심 변수입니다.

구분	현재	비고
연소득 (세전)	6,000만원	성과급 300~500만 별도
국민연금 (65세~)	월 120만원	현재 기준 예상액
퇴직급여 (DB형)	약 4,500만원	20년 근속 시 약 8,000만원
개인연금 / IRP	없음	세액공제 미활용
주택담보대출	2억 (잔여 15년)	월 원리금 140만 (원금 50+이자 90)
보장성 보험	종신 1억 + 실손	다·암·뇌·심 보장 공백

- 월 여유자금 30~70만원으로 연금·보장 동시 설계 시 예산 배분이 핵심
- 퇴직급여는 일시금 수령 시 노후 자금으로 부족 — 연금 전환 검토 필요
- 배우자 파트타임 복귀(월 100만) 시 가계 여유자금이 확대될 수 있음 해 보겠습니다.

# 우선순위

[고객 확인]: 홍길동 님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?

한 줄 결론: 세 가지 과제 중 고객이 직접 순위를 매기면, 설계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.

1



## 은퇴 현금흐름

60세 이후 월 300만원  
안정적 수령 구조 확보

2



## 교육비 방어

50~55세 교육비 집중기  
현금흐름 유지

3



## 소득 공백 대비

암·뇌·심 발생 시  
가족 생활비 보호

### 핵심 포인트:

- 위 순서는 초기 상담 기준 제안이며, 홍길동 님이 직접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
- 우선순위에 따라 A안·B안의 구성 비중이 달라집니다

·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, 예산 내에서 '먼저'와 '나중에'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컨설턴트 멘트: "홍길동 님,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름에 걸리는 것은 어떤 건가요? 순서를 정해주시면 그에 맞춰 설계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."

# 제도 기준

[법·세무 근거]: 연금·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

**한 줄 결론: 연금저축 + IRP 세액공제를 활용하면, 연간 최대 115.5만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.**

## 현행 기준 핵심

- 연금저축: 연 600만원 한도, 세액공제율 13.2% (총급여 5,500만 초과 시)
- IRP 추가: 연 300만원 추가 납입 시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
- 세액공제 최대: 연 약 115.5만원 환급 ( $900\text{만} \times 13.2\%$ , 현행 기준)

## 실무상 유의점

- 원칙: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(3.3~5.5%) 적용
- 예외: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, 세제혜택 환수
- 주의사항: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가능 (확인 필요)

△ 세액공제율·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적용 시점의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연결 문장: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, 홍길동 님의 은퇴 자금 부족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 
출처: 소득세법 제59조의3,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(2023년 기준, 확인 필요)

# 부족분

[격차 시각화] : 목표와 현재 사이, 구체적으로 얼마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

한 줄 결론: 은퇴 후 월 180만원, 교육비 총 1.2억, 소득보장 0원 — 세 가지 공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.

항목	목표	현재 준비	부족분
은퇴 월 생활비	월 300만원	국민연금 120만	월 180만원
교육비 (총)	약 1.2억	예적금 3,000만	약 9,000만원
소득 중단 대비	월 300만×24개월	종신 1억 (사망만)	CI·진단금 0원
퇴직 후 목돈	약 1억	DB 4,500만~8,000만	추가 재원 필요

※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 핵심 포인트:

- 부족분 합계: 은퇴 월 180만 + 교육비 9,000만 + 소득보장 공백 = 동시 해결 필요
-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교육비에 쓰이면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구조
- 예적금 3,000만원은 비상자금 성격이므로 별도 유지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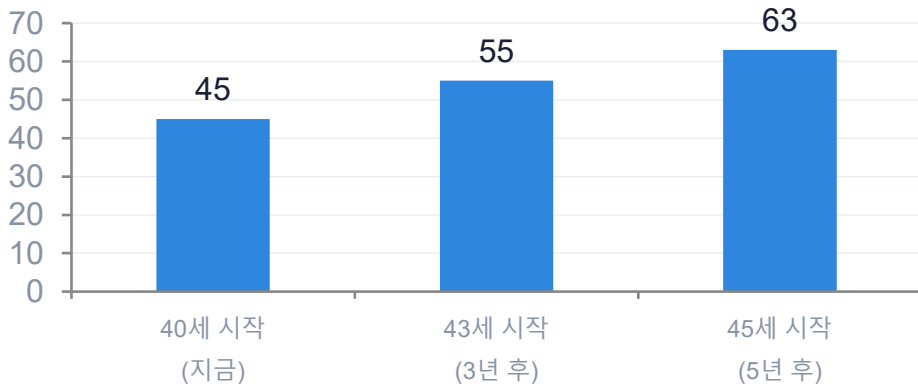
연결 문장: 이 부족분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

# 기회비용

[시간 가치]: 일찍 시작할수록 월 부담이 낮아지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

한 줄 결론: 같은 목표를 5년 뒤에 시작하면, 월 납입액이 약 40% 더 커집니다.

연금저축 월 45만 기준, 동일 목표 달성 시 필요 납입액



## 공백기간 리스크

CI·진단금 미가입  
기간 중 발생 시  
100% 자비 부담



## 비용 상승

나이 증가 시  
보험료 상승 +  
건강 조건 변화



## 기회비용

5년 늦추면  
같은 효과 위해  
월 18만원 추가 필요

※ 상기 수치는 연복리3%(보수적 가정) 기반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수령액은 시장 상황·세법 변경·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연결 문장: 시간의 가치를 확인했으니,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

# 설계 원칙

[구조 설계]: 해지가 아니라 재배치,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채우는 설계

한 줄 결론: 기존 보험은 유지하고, 빈 자리(연금·CI)만 채우는 최소 변경 설계입니다.



## 유동성

사건 발생 시 '현금이 언제 필요한가?'  
→ 진단금·연금은 필요한 시점에  
현금이 나오는 구조



## 리스크 전가

큰 손실 가능성을 '예산화(보험료)'로  
바꾸는 구조  
→ 월 보험료로 수천만원 리스크 방어



## 실행 지속성

저축·투자는 중단될 수 있으나  
연금·보험은 계약 구조로  
목표를 고정하는 장치

### 핵심 포인트:

- 기존 종신보험(사망 1억)은 유지 — 배우자 동의 사항이며, 사망보장 역할 유지
- 추가 설계 = 연금(노후 현금흐름) + CI(소득 공백 방어) + 세제혜택 활용
- 보험·연금이 맡는 역할: 유동성 확보 + 리스크 전가 + 실행 지속성

연결 문장: 이 원칙을 바탕으로, A안과 B안 두 가지 구체적인 설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

# 선택안

[A/B 비교]: 효과 우선과 부담 우선,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합니다

한 줄 결론: 두 안 모두 목표에 다가가는 설계이며, 속도와 부담의 차이입니다.

항목	A안 (효과 우선)	B안 (부담 우선)
연금저축	월 40만원 (연 480만)	월 25만원 (연 300만)
IRP	월 8만원 (연 96만)	성과급 시 연 100만 일시납
CI 진단금 보장	월 8만원 (암 3천+뇌·심 2천)	월 5만원 (암 2천+뇌·심 1천)
월 총 추가 부담	월 56만원	월 30만원
연 세액공제 환급	약 76만원	약 53만원
실질 월 부담	약 50만원	약 26만원
65세 예상 연금(월)	약 85만원 추가 수령	약 55만원 추가 수령
총 은퇴 월소득	국민 120+추가 85=약 205만	국민 120+추가 55=약 175만
리스크 방어	CI 진단금 5,000만원 이상	CI 진단금 3,000만원 이상

**A안: 부족분을 빠르게 축소 — 보험·연금 역할: 유동성 + 실행 지속성**

**B안: 현금흐름 유지하며 단계 적용 — 보험·연금 역할: 리스크 전가 + 지속성**

※ 상기 수치는 연복리 3%(보수적 가정) 기반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수령액은 시장 상황·세법 변경·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해지환급금 예시는 상품설명서 참조.

# 해결 연결

[매칭 표]: 부족분 → 해결 요소 → 적용 수단을 한눈에 연결합니다

한 줄 결론: 각 부족분에는 정확히 대응하는 해결 수단이 있으며, 빈칸 없이 매칭됩니다.

부족분 (리스크·필요재원)	해결 요소 (기능)	적용 수단
은퇴 후 월 180만원 부족	노후 현금흐름 확보	연금저축 + IRP (세액공제 활용)
세액공제 미활용 (연 115만)	세제혜택으로 실질 부담 절감	연금저축(600만) + IRP(300만)
CI·암·뇌·심 보장 공백	소득 중단 시 진단자금 확보	CI보험 (진단금 중심 보장)
교육비 집중기 현금흐름	목적자금 분리 + 유동성 유지	예적금 유지 + 연금 납입 유지 구조
퇴직 후 목돈 부족	퇴직급여 연금 전환 검토	DB→연금 수령 전환 (향후 검토)
사망보장 유지	가족 생활비 최종 방어선	기존 종신보험 유지 (월 15만)

※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컨설턴트 멘트: "홍길동 님, 이 표를 보시면 각 빈칸에 어떤 수단이 들어가는지 한눈에 보이시죠?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, 비어 있는 칸만 채우는 구조입니다."

# 진행 확정

[다음 단계]: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체크입니다

한 줄 결론: A안과 B안 중 더 마음이 편한 쪽에 체크하시면,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합니다.

☐ A안 진행 (효과 우선) — 월 56만원, 빠른 부족분 축소

☐ B안 진행 (부담 우선) — 월 30만원, 현금흐름 유지하며 단계 적용

☐ 보완 후 재결정 (보완 항목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재결정 날짜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## 다음 단계

1단계: 체크 후 → 상품설명서·약관 확인 및 배우자 동의 절차

2단계: 청약서 작성 및 건강고지 확인

3단계: 1개월 내 첫 납입 시작, 연말정산 서류 안내

**사후관리 약속: 분기 1회 점검 리포트 제공 / 세법·제도 변경 시 즉시 안내 / 배우자 동반 설명 가능**

[추천] 안정·보수형 "두 안 모두 원금 구조가 보이는 연금 중심 설계입니다. B안은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나중에 A안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."

논리·전문가형 "A안은 세액공제 76만원으로 실질 부담 50만, B안은 53만원 공제로 26만원. 20년 누적 차이를 감안하시면 효율 판단이 명확해집니다."

감성·가족중심형 "서준이·서윤이가 대학 갈 때도, 은퇴하실 때도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. 어떤 방식이 더 마음이 놓이세요?"

결정지연·신중형 "B안은 월 30만이니 작게 시작해서 효과를 직접 확인하신 후 확대하셔도 됩니다. 우선 시작이 중요합니다."

# 컨설턴트 전용 참고 슬라이드

※ 이 슬라이드는 고객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

- 핵심 니즈:

은퇴 후 월 300만원 현금흐름 확보 + 소득 공백 대비
- 가장 큰 부족분:

개인연금·IRP 전무 (월 180만원 부족 + 세액공제 미활용)
- 오늘 결론 질문:

A안(효과 우선)과 B안(부담 우선) 중 어느 쪽이 더 편안하세요?

## 예상 반대 & 즉답

- "여유자금이 빠듯해요"

→ B안 월 30만이면 현재 여유자금 30~70만 범위 내. 성과급 입금 시 IRP 추가 가능.
- "변액은 손실이 걱정"

→ 연금저축·IRP는 확정금리형·채권형 선택 가능. 원금 보전 구조 우선 제안.
- "배우자가 동의할지 모르겠어요"

→ 다음 상담에 배우자 동반 가능. 기존 보험 해지 없이 추가 설계라 부담 적음.

## A/B 시뮬레이션 비교 요약

항목	A안	B안
월 납입금	56만원	30만원
예상 세후 연금(추가분)	월 약 85만원	월 약 55만원
총 적세 혜택(20년)	약 1,520만원	약 1,060만원
※5%가 아닌 연4.5%(보수적) 기반 시뮬레이션.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		
리스크 방어 수준	CI 5,000만↑	CI 3,000만↑